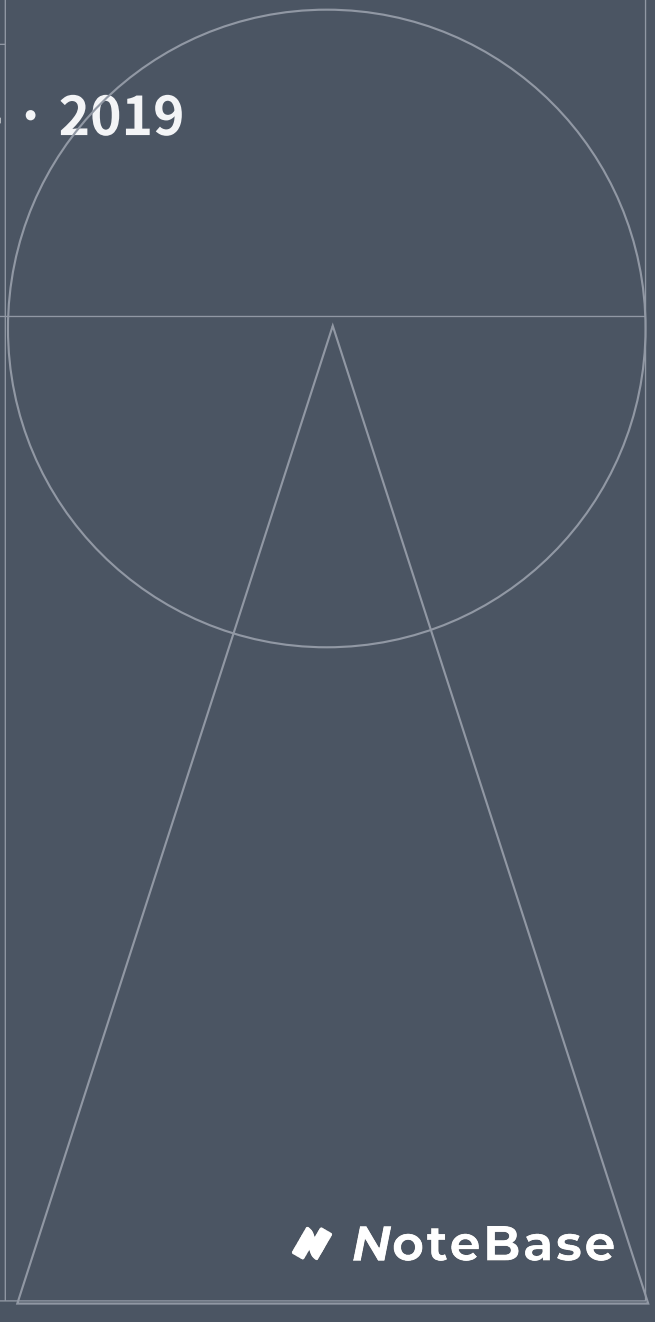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19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19

문 101. A국의 2018년 국민소득계정의 일부이다. 다음 자료에서 실질국민총소득(실질 GNI)은 얼마인가?

◯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 1,500조 원
◯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60조 원
◯ 실질대외순수취 요소소득: 10조 원

① 1,430조 원
② 1,450조 원
③ 1,500조 원
④ 1,550조 원
⑤ 1,570조 원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실질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실질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반영하여 실질국민총소득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실질GDP 1,500조 원,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60조 원, 실질대외순수취 요소소득 10조 원이다.
구해야 할 값: 실질GNI이다.
주의할 조건: 두 항목 모두 양의 값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실질GDP에 더한다.

사용할 공식

$GNI_R = GDP_R + T_R + NFI_R$
여기서 T_R는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NFI_R는 실질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다.
실질GNI는 국내에서 생산한 실질소득에 교역조건 변화로 생긴 실질 구매력의 증감과 국외에서 순수취한 실질 요소소득을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실질GDP 1,500조 원에서 출발한다.
2. 양의 실질무역손익 60조 원을 더하면 1,560조 원이다.
3. 양의 실질대외순수취 요소소득 10조 원을 더하면 1,570조 원이다.

따라서 실질GNI는 1,570조 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430조 원은 60조 원과 10조 원을 모두 빼서 나온 값이다. 두 항목이 모두 양수이므로 올바르게는 1,500조 원에 둘 다 더한 1,570조 원이다.
② X — 1,450조 원은 실질무역손익 60조 원을 빼고 실질대외순수취 요소소득 10조 원만 더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60조 원도 더하여 1,570조 원이다.
③ X — 1,500조 원은 실질GDP일 뿐이며 실질무역손익과 실질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두 항목을 더한 1,570조 원이다.
④ X — 1,550조 원은 실질무역손익 60조 원은 더했지만 실질대외순수취 요소소득 10조 원을 뺀 값이다. 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수이므로 올바르게는 10조 원을 더하여 1,570조 원이다.
⑤ O — 1,500조 원 + 60조 원 + 10조 원 = 1,570조 원이므로 실질GNI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손익’이라는 표현만 보고 실질무역손익 60조 원을 무조건 빼거나,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의 차이를 무시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실질무역손익과 실질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모두 양의 값이므로 둘 다 더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질GNI 문제에서는 실질GDP를 기준으로 잡고, 실질무역손익과 실질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의 부호를 각각 확인한 뒤 차례로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실질GNI = 실질GDP + 실질무역손익 + 실질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다.

NoteBase

문 102. 물가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② 디플레이션은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있는 경우, 실질임금을 상승시킨다.

③ 총수요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다.

④ 예상한 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의 경우에는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디플레이션은 기업 명목부채의 실질 상환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물가 상승·하락의 유형과 효과, 그리고 예상된 인플레이션에서도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명목임금이 잘 내려가지 않으면 실질임금 =(명목임금)/(물가수준)을 높이고 명목부채의 실질가치를 키운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메뉴비용은 기업이 가격표·카탈로그·전산 가격 등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었는지와 별개로 가격을 실제로 조정하면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발생하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② O. 명목임금이 하방경직적이면 디플레이션으로 물가수준이 하락해도 명목임금은 그만큼 내려가지 않으므로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③ O. 총수요 증가가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예상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메뉴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예상한 인플레이션이라도 기업이 물가 상승에 맞추어 명목가격을 변경하면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⑤ O. 디플레이션은 화폐가치와 명목부채의 실질가치를 높이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실질 상환액을 증가시킨다.

오답 포인트

④는 인플레이션을 미리 예상하면 모든 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예상 여부는 불확실성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가격을 실제로 바꾸는 행위 자체에서 생기는 메뉴비용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물가변동의 비용은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격 변경 때문에 생기는 메뉴비용은 예상 여부가 아니라 실제 가격 조정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임금과 실질부채는 명목값을 물가수준으로 나눈 실질가치의 변화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예상 인플레이션도 가격을 바꾸면 메뉴비용이 발생하고, 디플레이션은 실질임금과 실질부채를 높인다.

NoteBase

문 103.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국채를 ( )한다.
◯ 법정지급준비율을 ( )한다.
◯ 재할인율을 ( )한다.

① 매입 - 인하 - 인하
② 매입 - 인하 - 인상
③ 매입 - 인상 - 인하
④ 매각 - 인상 - 인상
⑤ 매각 - 인상 - 인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확대 통화정책에서 공개시장조작, 법정지급준비율, 재할인율을 어느 방향으로 조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팔아 시중의 자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자금이 공급되어 통화량이 증가한다.
법정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다. 이를 인하하면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고 예금통화 창출이 확대된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이다. 이를 인하하면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 부담이 줄어 대출과 통화 공급이 확대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국채 매입은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리며, 재할인율 인하는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 부담을 낮춘다. 세 조치 모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세 번째의 '재할인율 인상'이다.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 비용이 커져 통화 공급이 위축된다. 통화량을 늘리려면 '매입 - 인하 - 인하'가 되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두 번째의 '법정지급준비율 인상'이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유할 준비금이 늘어 대출과 예금통화 창출이 줄어든다. 통화량을 늘리려면 '매입 - 인하 - 인하'가 되어야 한다.
④ X — '국채 매각',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이 모두 잘못된 방향이다. 세 조치는 각각 시중 자금 회수, 대출 여력 축소, 중앙은행 차입 비용 상승을 일으켜 통화량을 줄인다. 올바른 조합은 '매입 - 인하 - 인하'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국채 매각'과 '법정지급준비율 인상'이다. 재할인율 인하는 통화량을 늘리는 방향이지만, 앞의 두 조치는 통화량을 줄이는 방향이다. 세 수단을 모두 확대 방향으로 조정하면 '매입 - 인하 - 인하'가 된다.

오답 포인트

'금리를 올리면 자금이 늘어난다'고 직관을 뒤집거나, 지급준비율을 은행의 가용 자금 비율로 오해하기 쉽다. 지급준비율과 재할인율은 모두 인하해야 통화 공급이 확대되며, 공개시장조작은 국채 매입이 확대 방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량 증가가 목표이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넣고 은행의 대출 제약과 차입 비용을 낮추는 조합을 찾는다. 따라서 공개시장조작은 국채 매입, 법정지급준비율은 인하, 재할인율은 인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확대 통화정책은 '국채는 사고, 두 비율은 내린다'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04. 다음 중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산효과: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자산의 실질가치가 상승하여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ㄴ. 이자율효과: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ㄷ. 환율효과: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자국 화폐의 상대가치가 하락하여 순수출이 증가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세 가지 이유인 자산효과, 이자율효과, 환율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총수요곡선은 물가수준과 총수요량의 역관계를 나타낸다.
자산효과: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화폐 등 명목자산의 실질가치가 커져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이자율효과: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화폐수요가 감소하고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환율효과: 물가수준 하락에 따른 이자율 하락은 자국 화폐의 상대가치를 낮추고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자산효과 자체는 옳지만,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에는 ㄴ과 ㄷ도 포함되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② X
ㄴ의 이자율효과 자체는 옳지만, ㄱ과 ㄷ을 제외했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③ X
ㄱ과 ㄴ은 모두 옳지만, 환율효과를 설명한 ㄷ도 옳으므로 ㄷ을 빠뜨린 것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④ X
ㄴ과 ㄷ은 모두 옳지만, 자산효과를 설명한 ㄱ도 옳으므로 ㄱ을 빠뜨린 것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⑤ O
ㄱ은 소비지출, ㄴ은 투자지출, ㄷ은 순수출의 증가를 각각 설명한다. 세 효과 모두 물가수준 하락이 총수요량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이므로 ㄱ, ㄴ, ㄷ을 모두 고른 조합이 옳다.

오답 포인트

ㄱ, ㄴ, ㄷ 각각의 진술이 옳은지를 판단한 뒤 조합해야 한다. 특히 ㄷ의 환율효과를 누락하면 ③을 고르기 쉽고, 옳은 진술 하나만 확인하면 ①이나 ②를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물가수준 하락이 소비, 투자, 순수출을 각각 늘리는지 확인한다. 실질자산가치 상승은 소비 증가, 이자율 하락은 투자 증가, 자국 화폐가치 하락은 순수출 증가로 연결되므로 세 경로가 모두 총수요량을 늘린다.

암기 포인트

물가 하락 → 자산가치 상승·이자율 하락·자국 화폐가치 하락 → 소비·투자·순수출 증가이다.

NoteBase

문 105.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가 상승 시 단기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② 인적자본이 증가하여도 장기 총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③ 생산성이 증가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④ 모든 가격이 신축적이면 물가가 하락하여도 장기에는 총산출량이 불변이다.

⑤ 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상승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단기 총공급은 생산비 변화에, 장기 총공급은 경제의 생산능력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 총공급곡선은 기업의 생산비와 생산성 등에 따라 이동하며, 생산비가 오르면 좌측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우측으로 이동한다.
장기 총공급곡선은 완전고용 상태의 잠재산출량을 나타내므로 노동·자본·인적자본·기술처럼 생산능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변할 때 이동한다. 물가수준만 변하는 경우에는 잠재산출량이 달라지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유가 상승은 에너지와 운송 등 생산비를 높이는 불리한 공급 충격이다. 같은 물가수준에서 기업이 공급하려는 산출량이 감소하므로 단기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인적자본이 증가하여도 장기 총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이다. 인적자본 증가는 노동자의 생산능력과 잠재산출량을 높이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③ O — 생산성 증가는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하게 하며 단위당 생산비를 낮춘다. 따라서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④ O — 모든 가격이 신축적인 장기에는 산출량이 노동·자본·기술 등 실물적 생산요소가 정하는 잠재산출량 수준에 있다. 물가 하락만으로는 이러한 생산능력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 총산출량은 불변이다.
⑤ O — 고용주 부담 의료보험료의 상승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을 높인다. 생산비 증가로 같은 물가수준에서 공급되는 산출량이 감소하므로 단기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오답 포인트

인적자본을 단기적인 생산비 요인으로만 생각하면 ②를 맞는 설명으로 오인하기 쉽다. 인적자본은 노동의 질과 경제의 장기 생산능력을 높이므로 장기 총공급곡선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유가·보험료처럼 현재 생산비를 바꾸는 요인은 단기 총공급의 이동을 먼저 판단한다.
노동·자본·인적자본·기술처럼 잠재산출량을 바꾸는 요인은 장기 총공급의 이동을 판단한다. 물가수준 자체의 변화는 장기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생산비 상승은 단기 총공급 좌측, 생산성·생산능력 증가는 총공급 우측이다.

NoteBase

문 106. 적응적 기대가설 하에서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 필립스곡선은 총수요 확장정책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② 단기 필립스곡선은 희생률(sacrifice ratio) 개념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③ 단기 필립스곡선은 본래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④ 밀턴 프리드만(M. Friedman)에 의하면 필립스곡선은 장기에 우하향한다.

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적응적 기대가설에서 단기 필립스곡선의 물가상승률·실업률 상충관계와 장기 필립스곡선의 형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 필립스곡선은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주어진 동안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나타나는 우하향 관계이다.
장기에는 사람들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기대를 조정하므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돌아간다. 따라서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다.
기대확장 필립스곡선은 충격을 생략하면 $\pi = \pi^e - \alpha(u - u_n)$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π^e가 상승하면 단기 필립스곡선 전체가 위쪽으로 이동하며, 같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으로도 표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고정된 단기에는 총수요 확대가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으므로 총수요 확장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② O — 단기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에서 생산 감소와 실업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감수하는 산출 손실을 나타내는 희생률 개념이 성립한다.
③ O — 필립스가 처음 제시한 관계는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역의 관계이다. 이후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로 확장되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장기에 우하향한다'이다.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 가설에 따르면 장기에는 기대가 조정되어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복귀하므로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다.
⑤ O —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각 실업률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율도 더 높아지므로 단기 필립스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한다. 실업률을 가로축으로 둔 우하향 곡선에서는 이를 오른쪽 이동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장기에 우하향'은 단기의 상충관계를 장기에도 그대로 적용한 표현이다. 적응적 기대하에서는 예상 밖의 인플레이션만 실업률을 일시적으로 자연실업률 아래로 낮출 수 있고, 기대가 조정되는 장기에는 이 효과가 사라진다. 또한 ⑤의 '오른쪽 이동'은 같은 변화를 위쪽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방향 표현만 보고 틀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고정된 단기인지 기대가 완전히 조정된 장기인지 구분한다. 단기는 우하향하여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하고, 장기는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므로 지속적인 상충관계가 없다. 예상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단기 필립스곡선 자체의 위쪽 또는 오른쪽 이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단기 우하향·장기 수직,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단기곡선의 위쪽 또는 오른쪽 이동이다.

NoteBase

문 107. D국 경제의 총생산함수 $Y = AK^{\frac{1}{3}}L^{\frac{2}{3}}$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 L은 노동을 나타낸다.)

① 총생산량에 대한 노동탄력성은 $\frac{2}{3}$이다.

② 기술이 진보하면 총요소생산성(A)이 증가한다.

③ 총생산함수는 규모에 따른 수확체감을 나타내고 있다.

④ 경제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A)의 증가율과 투입물(L, K)의 증가율로 결정된다.

⑤ 노동소득분배율은 $\frac{2}{3}$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Cobb-Douglas 생산함수에서 각 투입요소의 지수는 생산탄력성과 소득분배율을 나타내며, 지수의 합은 규모수익을 결정한다.

조건 정리

주어진 생산함수는 $Y = AK^{\frac{1}{3}}L^{\frac{2}{3}}$이다.
자본의 지수는 $\frac{1}{3}$, 노동의 지수는 $\frac{2}{3}$이며 두 지수의 합은 1이다.

사용할 공식

생산함수 $Y = AK^{\alpha}L^{\beta}$에서 자본의 생산탄력성은 α, 노동의 생산탄력성은 β이다.
모든 투입요소를 t배 하면 생산량은 $t^{\alpha+\beta}$배가 되므로 $\alpha + \beta = 1$이면 규모수익불변이다.
성장회계식은 $g_Y = g_A + \alpha g_K + \beta g_L$이다.

계산 과정

1. 노동의 지수는 $\frac{2}{3}$이므로 노동의 생산탄력성은 $\frac{2}{3}$이다.
2. 지수의 합은 $\frac{1}{3} + \frac{2}{3} = 1$이다.
3. 따라서 자본과 노동을 모두 같은 비율로 늘리면 생산량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므로 규모수익불변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노동투입이 1% 증가할 때 총생산량은 약 $\frac{2}{3}$% 증가하므로 노동탄력성은 $\frac{2}{3}$이다.
② O — 기술진보는 동일한 자본과 노동으로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므로 총요소생산성 A의 증가로 표현된다.
③ X — '규모에 따른 수확체감'이 틀린 표현이다. 지수의 합이 1이므로 올바르게는 '규모에 따른 수확불변을 나타낸다'이다.
④ O — 생산함수의 증가율을 분해하면 $g_Y = g_A + \frac{1}{3}g_K + \frac{2}{3}g_L$이므로 경제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과 자본·노동 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
⑤ O — 완전경쟁 요소시장에서는 각 생산요소가 한계생산만큼 보상되므로 Cobb-Douglas 함수의 노동 지수 $\frac{2}{3}$이 노동소득분배율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개별 생산요소의 한계생산 체감과 규모수익 체감을 혼동하게 만든다. 자본이나 노동 하나만 늘릴 때는 지수가 1보다 작아 한계생산이 체감하지만, 자본과 노동을 함께 늘릴 때의 규모수익은 두 지수의 합으로 판단하므로 이 함수는 규모수익불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obb-Douglas 생산함수에서는 먼저 각 지수를 생산탄력성으로 읽고, 지수의 합이 1보다 작은지·같은지·큰지에 따라 규모수익체감·불변·체증을 판단한다. 성장률은 각 투입 증가율에 해당 지수를 곱한 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더한다.

암기 포인트

지수는 탄력성과 소득분배율, 지수의 합은 규모수익이다.

NoteBase

문 108. A국은 자본이동 및 무역거래가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A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따른 최종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IS-LM-BP 모형에 의한다.)

①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 모두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②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있다.

③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④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⑤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 모두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환율제도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한 자본이동 아래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과 같아져야 한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은 통화량 증가를 동반하여 국민소득을 늘리지만, 독자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외환 유출과 통화량 환수로 사라진다.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조정되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통화가치 상승과 순수출 감소로 상쇄되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통화가치 하락과 순수출 증가를 통해 국민소득을 늘린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 모두'이다. 고정환율제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만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② X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서로 바꾸어 서술했다. 고정환율제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효과가 있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③ O — 고정환율제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을 증대시키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환율 유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때문에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
④ X — 변동환율제의 정책 효과를 반대로 서술했다. 변동환율제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고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
⑤ X — 틀린 표현은 '모두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다'이다. 변동환율제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없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환율제도별로 유효한 정책을 뒤바꾸기 쉽다. 특히 ②는 고정환율제의 결과를 정반대로 제시하고, ④는 변동환율제의 결과를 정반대로 제시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한 자본이동을 전제로 먼저 환율제도를 확인한다. 고정환율제이면 재정정책만 유효하고, 변동환율제이면 통화정책만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정환율은 재정정책, 변동환율은 통화정책이 유효하다.

NoteBase

문 109. A국의 2018년 국제수지표의 일부 항목이다. 다음 표에서 경상수지는 얼마인가?

◯ 상품수지: 54억 달러
◯ 서비스수지: -17억 달러
◯ 본원소득수지: 3억 달러
◯ 이전소득수지: -5억 달러
◯ 직접투자: 26억 달러
◯ 증권투자: 20억 달러

① 35억 달러 흑자
② 40억 달러 흑자
③ 60억 달러 흑자
④ 61억 달러 흑자
⑤ 81억 달러 흑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네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의 부호를 반영하여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상품수지 54억 달러, 서비스수지 -17억 달러, 본원소득수지 3억 달러, 이전소득수지 -5억 달러이다.
구해야 할 값: 경상수지이다.
주의할 조건: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금융계정 항목이므로 경상수지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용할 공식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
경상수지는 재화·서비스 거래와 본원소득·이전소득 거래의 수지를 합한 값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경상수지에 포함되는 네 항목만 고른다.
2. 적자 항목의 음수 부호를 그대로 반영한다.
3. $54 + (-17) + 3 + (-5) = 35$

따라서 경상수지는 35억 달러 흑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네 경상수지 항목을 합하면 35억 달러이므로 맞다.
② X — 40억 달러는 이전소득수지 -5억 달러를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이전소득수지까지 반영한 35억 달러 흑자이다.
③ X — 네 경상수지 항목을 부호대로 합한 값은 60억 달러가 아니라 35억 달러이다. 올바르게는 35억 달러 흑자이다.
④ X — 네 경상수지 항목을 부호대로 합한 값은 61억 달러가 아니라 35억 달러이다. 올바르게는 35억 달러 흑자이다.
⑤ X — 81억 달러는 경상수지 35억 달러에 직접투자 26억 달러와 증권투자 20억 달러를 잘못 더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두 금융계정 항목을 제외한 35억 달러 흑자이다.

오답 포인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도 국제수지표에 제시되어 있지만 경상수지 구성 항목은 아니다. 또한 서비스수지 -17억 달러와 이전소득수지 -5억 달러의 음수 부호를 빠뜨리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만 고른 뒤, 흑자는 양수로 적자는 음수로 합산한다. 직접투자·증권투자 등 금융계정 항목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본원소득·이전소득의 합이며,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금융계정이다.

NoteBase

문 110. A국과 B국은 상호 무역에 대해 각각 관세와 무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 다음은 양국이 동시에 전략을 선택할 경우의 보수행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지고 괄호 안의 왼쪽 값은 A국의 보수, 오른쪽 값은 B국의 보수를 나타낸다.)

(단위: 억 원)

		B국	
		무관세	관 세
A국	무관세	(300, 250)	(400, 100)
	관 세	(150, 300)	(200, 200)

① A국의 우월전략은 관세이다.

② B국의 우월전략은 무관세이다.

③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300, 250)이다.

④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다.

⑤ 우월전략균형이 내쉬균형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보수행렬에서 상대국의 각 전략에 대한 최적 대응을 비교하여 우월전략, 내쉬균형, 파레토 효율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괄호의 왼쪽 값은 A국, 오른쪽 값은 B국의 보수임을 확인한다.
2. 상대국의 전략을 하나씩 고정하고 각국의 두 전략 중 보수가 더 큰 전략을 찾는다.
3. 양국의 최적 대응이 만나는 칸에서 내쉬균형을 찾는다.
4. 그 균형보다 양국 모두의 보수를 높이는 다른 칸이 있는지 비교하여 파레토 효율성을 판단한다.

핵심 근거

B국이 무관세이면 A국의 보수는 무관세 300, 관세 150이고, B국이 관세이면 A국의 보수는 무관세 400, 관세 200이다. 따라서 A국은 언제나 무관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A국이 무관세이면 B국의 보수는 무관세 250, 관세 100이고, A국이 관세이면 B국의 보수는 무관세 300, 관세 200이다. 따라서 B국도 언제나 무관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국의 우월전략이 만나는 무관세·무관세가 내쉬균형이며, 이때 보수조합은 (300, 25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B국이 무관세일 때 A국은 300과 150 중 300을, B국이 관세일 때도 400과 200 중 400을 얻는 무관세를 선택한다. 틀린 표현은 ‘A국의 우월전략은 관세’이며, 올바르게는 ‘A국의 우월전략은 무관세’이다.
② O — A국이 무관세일 때 B국은 250과 100 중 250을, A국이 관세일 때도 300과 200 중 300을 얻는 무관세를 선택하므로 B국의 우월전략은 무관세이다.
③ O — A국과 B국의 우월전략이 모두 무관세이므로 내쉬균형은 무관세·무관세이고, 해당 칸의 보수조합은 (300, 250)이다.
④ O — 내쉬균형의 (300, 250)과 비교할 때 (400, 100)은 B국의 보수가 감소하고, (150, 300)은 A국의 보수가 감소하며, (200, 200)은 양국의 보수가 모두 감소한다. 양국 중 누구의 보수도 낮추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국가의 보수를 높이는 다른 결과가 없으므로 이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⑤ O — 우월전략균형에서는 각 국가가 상대국의 전략과 관계없이 자신의 최적 전략을 선택한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도 단독으로 전략을 바꾸어 보수를 높일 수 없으므로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관세를 부과할 때의 특정 보수만 보고 전략을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우월전략은 한 칸의 보수가 아니라 상대국의 각 전략을 고정한 모든 경우에서 자신의 두 보수를 비교해야 한다. 또한 파레토 효율성은 보수합이 더 큰 결과가 있는지가 아니라, 어느 국가의 보수도 감소시키지 않고 적어도 한 국가의 보수를 높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열에서 A국의 왼쪽 보수를 비교하고 각 행에서 B국의 오른쪽 보수를 비교한다. 모든 경우에 같은 전략이 더 크면 그 전략이 우월전략이고, 양국의 최적 대응이 만나는 칸이 내쉬균형이다. 파레토 효율성은 그 칸보다 양국 모두에게 약하지 않고 적어도 한 국가에게 더 좋은 다른 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우월전략은 상대의 선택별로 전부 비교하고, 내쉬균형은 최적 대응의 교차점이며, 파레토 효율성은 모두를 동시에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11. 사적 재화인 X재 시장의 수요자는 A와 B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화 X에 대한 A의 수요함수는 $q_A = 10 - 2P$, B의 수요함수는 $q_B = 15 - 3P$일 때,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단, q_A는 A의 수요량, q_B는 B의 수요량, Q는 시장수요량, P는 가격이다.)

① $Q = 10 - 2P$

② $Q = 10 - 3P$

③ $Q = 15 - 2P$

④ $Q = 15 - 3P$

⑤ $Q = 25 - 5P$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사적 재화의 시장수요는 같은 가격에서 각 소비자의 수요량을 수평으로 합산하여 구한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개인수요함수는 $q_A = 10 - 2P$, $q_B = 15 - 3P$이다.
구해야 할 것은 시장수요량 Q와 가격 P의 관계이다.
두 소비자의 수요량이 모두 0이 되는 최고지불가격은 $P = 5$로 같다.

사용할 공식

$Q = q_A + q_B$
사적 재화는 여러 소비자가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와 달리, 주어진 동일 가격에서 개인별 수요량을 더해 시장수요량을 구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같은 가격 P에서 두 개인의 수요량을 더한다.
2. $Q = (10 - 2P) + (15 - 3P)$
3. 상수항과 가격의 계수를 각각 합치면 $Q = 25 - 5P$이다. 엄밀히는 $0 \leq P \leq 5$에서 이 식이 적용되고, $P > 5$에서는 시장수요량이 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Q = 10 - 2P$는 A의 개인수요함수만 적은 것이므로 B의 수요가 빠졌다. 올바르게는 두 개인의 수요량을 더한 $Q = 25 - 5P$이다.
② X — $Q = 10 - 3P$는 상수항과 가격계수를 서로 다른 개인의 식에서 섞은 것으로 수평 합산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상수항끼리, 가격계수끼리 더해 $Q = 25 - 5P$이다.
③ X — $Q = 15 - 2P$ 역시 상수항과 가격계수를 서로 다른 개인의 식에서 섞은 것이다. 올바르게는 $Q = 25 - 5P$이다.
④ X — $Q = 15 - 3P$는 B의 개인수요함수만 적은 것이므로 A의 수요가 빠졌다. 올바르게는 $Q = 25 - 5P$이다.
⑤ O — $(10 - 2P) + (15 - 3P) = 25 - 5P$이므로 시장수요함수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처럼 개인수요함수 하나를 그대로 시장수요함수로 고르거나, ②와 ③처럼 두 식의 일부 항만 섞는 것이 함정이다. 시장수요는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 전체를 합산하므로 상수항과 가격계수가 모두 합쳐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적 재화의 시장수요함수는 먼저 각 개인이 실제로 수요하는 가격 구간을 확인하고, 같은 가격에서 개인수요량을 수평 합산하여 판단한다. 개인별 최고지불가격이 다르면 가격 구간별로 시장수요함수를 나누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사적 재화의 시장수요는 같은 가격에서 수량을 더하는 수평 합산이다.

NoteBase

문 112. 정상재인 커피의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shift)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① 커피의 가격이 하락한다.

②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다.

③ 소비자의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④ 대체재인 홍차의 가격이 상승한다.

⑤ 보완재인 설탕의 가격이 상승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커피 자체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와 소득·선호·연관재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곡선의 이동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량의 변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재화 자체의 가격이 변하여 동일한 수요곡선 위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수요의 변화: 소득, 선호, 대체재·보완재 가격 등 재화 자체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여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해당 재화의 수요를 늘리고, 보완재의 가격 상승은 해당 재화의 수요를 줄인다.

선지별 해설

① X — 커피의 가격 하락은 커피의 수요량을 증가시키지만, 동일한 수요곡선 위에서의 이동일 뿐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수요곡선 위에서 수요량이 증가한다'이다.
② X — 커피는 정상재이므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커피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틀린 방향은 '좌측'이며, 올바르게는 '우측으로 이동한다'이다.
③ X —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각 가격에서 구매하려는 커피의 양이 증가하므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틀린 방향은 '좌측'이며, 올바르게는 '우측으로 이동한다'이다.
④ X — 홍차는 커피의 대체재이므로 홍차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가 커피로 대체하여 커피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커피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틀린 방향은 '좌측'이며, 올바르게는 '우측으로 이동한다'이다.
⑤ O — 설탕은 커피의 보완재이므로 설탕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와 설탕을 함께 소비하는 비용이 커져 커피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커피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커피의 가격 하락'을 수요 증가 요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재화 자체의 가격 변화는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곡선 위의 수요량만 변화시킨다. 또한 대체재 가격 상승은 해당 재화의 수요를 늘리지만, 보완재 가격 상승은 해당 재화의 수요를 줄인다는 방향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변한 것이 재화 자체의 가격인지 확인한다. 자체 가격이면 수요곡선 위의 이동이고, 소득·선호·연관재 가격이면 수요곡선의 이동이다. 정상재의 소득 증가, 선호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며, 보완재 가격 상승은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암기 포인트

자체 가격은 곡선 위 이동, 정상재 소득·선호·대체재 가격 상승은 우측, 보완재 가격 상승은 좌측이다.

NoteBase

문 113. 재화 X의 공급함수가 $Q = 10P - 4$이다. $P = 2$일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 Q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0.5
② 0.75
③ 1
④ 1.25
⑤ 2.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 점에서의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식으로 공급량의 가격 반응 정도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공급함수는 $Q = 10P - 4$이고 가격은 $P = 2$이다.
먼저 해당 가격에서의 공급량 Q와 공급함수의 기울기 dQ/dP를 구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점탄력성 공식은 다음과 같다.
$E_s = \frac{dQ}{dP} \times \frac{P}{Q}$
공급함수가 주어지고 특정 가격 $P = 2$에서의 탄력성을 묻고 있으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P = 2$를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Q = 10 \times 2 - 4 = 16$이다.
2. 공급함수의 기울기는 $dQ/dP = 10$이다.
3. 따라서 $E_s = 10 \times \frac{2}{16} = \frac{20}{16} = 1.25$이다.

선지 판단

① X — 0.5는 계산 결과 1.25와 다르다. 틀린 값 0.5를 올바르게 고치면 1.25이다.
② X — 0.75는 계산 결과 1.25와 다르다. 틀린 값 0.75를 올바르게 고치면 1.25이다.
③ X — 1은 계산 결과 1.25와 다르다. 틀린 값 1을 올바르게 고치면 1.25이다.
④ O — $10 \times (2/16) = 1.25$이므로 옳다.
⑤ X — 2.5는 계산 결과 1.25와 다르다. 틀린 값 2.5를 올바르게 고치면 1.25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공급함수의 기울기 10만으로 탄력성을 판단하거나 P/Q를 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탄력성은 기울기 자체가 아니라 기울기에 해당 점의 가격·수량 비율을 반영한 값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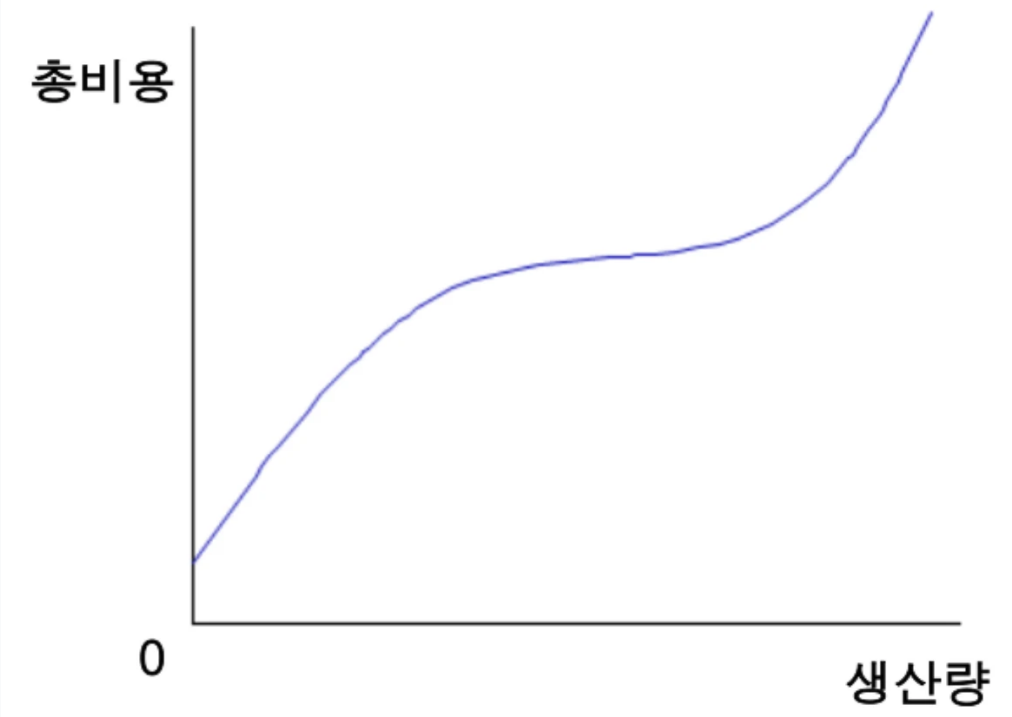
특정 점의 탄력성은 먼저 그 점의 Q를 구하고, 다음으로 dQ/dP를 구한 뒤, 마지막으로 $(dQ/dP)(P/Q)$에 대입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급의 점탄력성은 '공급곡선의 기울기 × 가격/수량', 즉 $E_s = (dQ/dP)(P/Q)$이다.

NoteBase

문 114. A기업의 총비용곡선이 아래와 같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균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위에 위치한다.

② 평균비용곡선이 상승할 때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 아래에 있다.

③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총비용곡선과 접하는 점에서 평균비용은 최소이다.

④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총가변비용곡선과 접하는 점에서 평균가변비용은 최소이다.

⑤ 총비용곡선의 임의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총비용곡선의 기울기와 원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한계비용·평균비용·평균가변비용의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평균비용은 생산량 한 단위당 총비용으로 $AC = TC/Q$이고, 평균가변비용은 생산량 한 단위당 가변비용으로 $AVC = TVC/Q$이다. 총비용은 $TC = TFC + TVC$이므로 고정비용이 양수이면 $AC = AVC + AFC$가 되어 평균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보다 위에 있다.
한계비용은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릴 때 증가하는 비용으로 총비용곡선 또는 총가변비용곡선의 접선 기울기이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고,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다.
원점과 총비용곡선의 한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TC/Q = AC$이다. 이 직선이 총비용곡선에 접할 때 평균비용이 최소가 된다. 같은 원리로 원점에서 총가변비용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최소 평균가변비용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AC = AVC + AFC$이고 평균고정비용 AFC는 양수이므로 평균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 위에 위치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평균비용곡선이 상승할 때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 아래에 있다”이다. 평균비용이 상승하려면 새로 추가되는 단위의 비용인 한계비용이 기존 평균비용보다 커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평균비용곡선이 상승할 때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 위에 있다”이다.
③ O. 원점에서 총비용곡선의 한 점까지 그은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비용이며, 그 직선이 총비용곡선에 접하는 지점에서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져 $AC = MC$가 된다. 이 지점은 평균비용의 최솟값이다.
④ O. 원점에서 총가변비용곡선의 한 점까지 그은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가변비용이며, 이 직선이 총가변비용곡선에 접하는 지점에서 $AVC = MC$가 되어 평균가변비용이 최소가 된다.
⑤ O. 총비용곡선의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생산량 변화에 따른 총비용의 변화율이므로 그 생산량에서의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②는 평균비용이 상승한다는 사실과 한계비용의 위치를 반대로 연결한 선지이다. 평균을 끌어올리는 새 값은 기존 평균보다 커야 하므로, 평균비용 상승 구간에서는 반드시 $MC > AC$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용곡선 문제에서는 먼저 기울기의 종류를 구분한다. 총비용곡선의 접선 기울기는 한계비용이고, 원점과 곡선 위의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비용이다. 평균이 상승하면 한계값이 평균보다 크고, 평균이 하락하면 한계값이 평균보다 작으며, 평균의 최저점에서는 두 값이 같다.

암기 포인트

접선 기울기는 한계비용, 원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비용이다. 평균 상승은 $MC > AC$, 평균 최저점은 $MC = AC$이다.

NoteBase

문 115. 외부효과(external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다.
ㄴ. 외부효과는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시장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법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가격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편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기업의 사적 한계비용보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크므로 시장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한다.
내부화는 조세·보조금 또는 당사자 간 협상 등을 통해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틀리므로 ㄱ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 올바르게는 ㄴ, ㄷ을 고른다.

② X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리므로 ㄱ, ㄴ을 고른 것은 옳지 않다. 조세나 보조금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지만,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시장이 과다 생산한다. 올바르게는 ㄴ, ㄷ을 고른다.

③ X
ㄷ은 옳지만 ㄱ은 틀리므로 ㄱ, ㄷ을 고른 것은 옳지 않다.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으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비효율을 줄일 수 있지만, 시장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올바르게는 ㄴ, ㄷ을 고른다.

④ O
ㄴ과 ㄷ은 모두 옳다. 조세·보조금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정책수단이며, 거래비용이 없는 협상은 당사자들이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일 수 있게 한다.

⑤ X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세 진술을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다. ㄱ의 '시장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다'는 표현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로 고쳐야 한다. 올바르게는 ㄴ, ㄷ을 고른다.

오답 포인트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과소생산으로 착각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기업이 외부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아져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초과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오면 '외부비용 누락 → 사적 비용 과소평가 → 시장의 과다 생산' 순서로 판단한다. 조세·보조금과 거래비용 없는 자발적 협상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수단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의 과다 생산이며, 내부화 수단은 조세·보조금·협상이다.

NoteBase

문 116. 정부가 제품 1개당 10만큼의 종량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② 수요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③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정부의 조세수입은 같다.

④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같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경우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조세부담이 크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종량세의 법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조세부담을 누가 더 지는지는 별개이며, 실제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종량세는 거래량 한 단위마다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공급자와 수요자 중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수요자가 지급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는 단위당 10의 동일한 조세 쐐기가 생긴다. 따라서 거래량, 조세수입, 경제적 순손실은 동일하다.
조세부담은 가격탄력성이 더 작은 쪽이 더 크게 진다.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쪽은 세금 때문에 거래조건이 불리해져도 거래량을 상대적으로 적게 줄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급자에게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세액만큼 위로 이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므로 수요자가 지급하는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② O. 수요자에게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세액만큼 아래로 이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므로 공급자가 받는 시장의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다만 수요자의 실제 지급액은 이 가격에 세금을 더한 금액이다.
③ O. 세금을 어느 쪽에 부과하더라도 동일한 조세 쐐기와 동일한 거래량이 형성되므로 정부의 조세수입도 동일하다.
④ O. 세금 부과 주체가 달라도 세액과 거래량 감소분이 같으므로 경제적 순손실도 동일하다.
⑤ X. 틀린 표현은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조세부담이 크다'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크면 수요자가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고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므로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더 크다.
올바르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경우 수요자보다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크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가 실제 부담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①과 ②의 균형가격은 각각 수요자가 지급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을 가리키며, 실제 조세부담의 배분은 법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상대적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금 부과 대상과 관계없이 단위당 세금만큼의 가격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다음 수요와 공급 중 가격탄력성이 더 작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과 대상은 귀착을 바꾸지 않으며, 더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NoteBase

문 117. 재화 X와 Y만을 소비하는 A의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며, MU_X는 X재의 한계효용, P_X는 X재의 가격, MU_Y는 Y재의 한계효용, P_Y는 Y재의 가격이다.)

①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이다.

② $\frac{MU_Y}{MU_X} > \frac{P_Y}{P_X}$인 경우에 Y재의 소비를 줄이고 X재의 소비를 늘려야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

③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두 재화 가격의 비율이다.

④ 효용극대화는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⑤ 한계대체율은 두 재화의 한계효용 비율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무차별곡선의 한계대체율, 예산제약선의 가격비율, 한계효용 대비 가격을 이용한 소비 조정 방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계대체율은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한 재화를 더 소비하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다른 재화의 양이며, 한계효용의 비율로 나타난다.
효용극대화의 내부해에서는 $\frac{MU_X}{P_X} = \frac{MU_Y}{P_Y}$가 성립한다. 한계효용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 더 큰 재화는 지출 1원당 추가 효용이 더 크므로 그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절댓값은 한계대체율이다. X를 가로축, Y를 세로축에 두면 기울기는 $-\frac{MU_X}{MU_Y}$이고 한계대체율은 그 절댓값이다.
② X — $\frac{MU_Y}{MU_X} > \frac{P_Y}{P_X}$를 정리하면 $\frac{MU_Y}{P_Y} > \frac{MU_X}{P_X}$이다. 따라서 Y재의 지출 1원당 한계효용이 더 크다. 틀린 표현은 'Y재의 소비를 줄이고 X재의 소비를 늘려야'이며, 올바르게는 'X재의 소비를 줄이고 Y재의 소비를 늘려야'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
③ O — 예산식이 $P_XX + P_YY = I$이면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frac{P_X}{P_Y}$이고, 기울기 절댓값은 두 재화의 가격비율 $\frac{P_X}{P_Y}$이다.
④ O — 표준적인 내부해에서는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이 접하는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며, 이때 한계대체율과 가격비율이 일치한다.
⑤ O — 한계대체율은 두 재화의 한계효용 비율이다. X를 가로축, Y를 세로축에 두면 그 크기는 $\frac{MU_X}{MU_Y}$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부등식의 양변에 등장하는 비율만 보고 소비 조정 방향을 거꾸로 판단하게 만든다. 가격까지 고려한 $\frac{MU}{P}$가 더 큰 재화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한계효용·가격 비율이 다르면 각각을 $\frac{MU}{P}$ 형태로 바꾼다. 값이 큰 재화는 소비를 늘리고 값이 작은 재화는 소비를 줄이며, 두 값이 같아지면 내부 효용극대화 조건이 충족된다.

암기 포인트

지출 1원당 한계효용 $\frac{MU}{P}$: 큰 쪽은 늘리고 작은 쪽은 줄인다.

NoteBase

문 118.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근거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생산에 있어서 과다한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③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기 때문이다.

④ 평균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윤극대화 독점기업의 생산량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MR = MC$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우하향하는 시장수요곡선에서는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으므로 독점 생산량에서 $P > MC$가 된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인 생산량은 소비자의 한계편익을 나타내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P = MC$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적게 생산하고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사중손실을 발생시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은 상품의 종류가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해서가 아니라,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정하여 $P > MC$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생산에 있어서 과다한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올바르게는 독점기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므로 해당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고 보아야 한다.

③ O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 생산량은 $P = MC$에서 정해지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보다 작으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평균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점'이다. 일반적인 이윤극대화 독점기업은 평균비용과 가격이 같은 점이 아니라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MR = MC$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바르게는 독점기업도 $MR = MC$에서 생산한다. 비효율성의 근거는 그 생산량에서 $P > MC$가 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한다는 점이다.

오답 포인트

독점의 이윤극대화 조건과 자원배분의 효율 조건을 혼동하기 쉽다. $MR = MC$는 독점기업의 사적 이윤극대화 조건이고, $P = MC$는 사회적 자원배분의 효율 조건이다. ⑤는 독점기업이 $MR = MC$를 따르지 않는다고 표현하여 이 둘을 뒤섞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의 비효율성을 묻는 경우 먼저 독점 생산량의 $MR = MC$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의 $P = MC$를 구분한다. 우하향 수요에서는 $P > MR$이므로 독점 생산량에서 $P > MC$가 되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작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은 $MR = MC$, 효율은 $P = MC$이다. 독점에서는 $P > MC$, 과소생산, 사중손실이 이어진다.

NoteBase

문 119.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비자 A는 정상재인 X재와 Y재만을 소비한다. X재 가격이 하락하면, (ㄱ)로 인해 X재와 Y재의 소비는 증가한다. 동시에 (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싸진 X재의 소비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Y재의 소비는 감소한다. 단, 소비자 A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① ㄱ: 소득효과, ㄴ: 대체효과

② ㄱ: 소득효과, ㄴ: 가격효과

③ ㄱ: 대체효과, ㄴ: 소득효과

④ ㄱ: 대체효과, ㄴ: 가격효과

⑤ ㄱ: 가격효과, ㄴ: 대체효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X재 가격 하락의 효과를 실질소득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와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득효과: 가격 변화로 실질소득, 즉 주어진 소득의 구매력이 달라져 소비량이 변하는 효과이다. X재 가격이 하락하면 구매력이 커지고, X재와 Y재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두 재의 소비가 증가한다.
대체효과: 상대가격이 변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재로 소비를 바꾸는 효과이다. X재 가격이 하락하면 X재 소비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Y재 소비는 감소한다.
가격효과: 한 재의 가격 변화가 그 재의 수요량에 미치는 전체 효과이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은 구매력 증가로 두 정상재의 소비가 모두 늘어나는 소득효과이고, (ㄴ)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X재를 더 소비하고 Y재를 덜 소비하는 대체효과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ㄴ)의 '가격효과'이다. X재와 Y재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 대체를 설명하므로 (ㄴ)은 대체효과이다.
③ X — (ㄱ)과 (ㄴ)을 서로 바꾼 것이 틀렸다. 두 정상재의 소비를 함께 늘리는 (ㄱ)은 소득효과이고, X재 소비는 늘리고 Y재 소비는 줄이는 (ㄴ)은 대체효과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ㄱ)의 '대체효과'와 (ㄴ)의 '가격효과'이다. 올바르게는 (ㄱ)이 소득효과이고 (ㄴ)이 대체효과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ㄱ)의 '가격효과'이다. 가격효과는 가격 변화의 전체 효과이고, 구매력 증가로 두 정상재의 소비가 늘어나는 설명은 소득효과이므로 (ㄱ)은 소득효과이다. (ㄴ)의 대체효과는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문구만 보고 (ㄱ)을 가격효과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ㄱ)은 두 정상재의 소비가 함께 증가한다는 구매력 변화를, (ㄴ)은 상대적으로 싼 X재로 소비가 이동한다는 상대가격 변화를 설명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매력이나 실질소득의 변화가 원인이면 소득효과, 상대적으로 싸진 재의 소비가 늘고 비싸진 재의 소비가 줄면 대체효과로 판단한다. 가격 변화의 최종적인 전체 수요 변화는 가격효과로 본다.

암기 포인트

구매력 변화는 소득효과, 상대가격 변화는 대체효과, 둘을 합친 전체 변화는 가격효과이다.

NoteBase

문 120.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니계수의 값이 클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이다.
ㄴ. 교차하지 않는 두 로렌츠곡선 중, 대각선에 더 가까이 위치한 것이 더 평등한 분배상태를 나타낸다.
ㄷ. 지니계수의 값이 커질수록, 십분위분배율은 작아진다.
ㄹ.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할 때, 지니계수는 1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십분위분배율이 소득분배의 평등도를 어떤 방향으로 나타내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평등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로렌츠곡선은 누적인구비율과 누적소득비율의 관계를 나타낸다. 완전평등선인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값이 클수록 분배가 평등하며, 불평등이 심해져 지니계수가 커지는 방향에서는 작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이 틀리다. ㄱ의 '지니계수의 값이 클수록 더욱 평등하다'가 잘못되었으며, 올바르게는 지니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이다.
② X — ㄷ은 옳지만 ㄱ이 틀리다. ㄱ은 '지니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ㄴ과 ㄷ이 모두 옳다. 교차하지 않는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운 곡선일수록 더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며, 불평등도가 높아져 지니계수가 커질수록 평등도를 나타내는 십분위분배율은 작아진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ㄹ의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할 때 지니계수는 1이다'가 잘못되었으며, 올바르게는 이때 완전평등이므로 지니계수는 0이다.
⑤ X —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ㄹ은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할 때 지니계수는 0이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지니계수와 십분위분배율의 숫자가 커지는 방향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지니계수는 클수록 불평등하지만 십분위분배율은 클수록 평등하다. 또한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사라지는 경우의 지니계수는 1이 아니라 0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지표에서 큰 값이 평등을 뜻하는지 불평등을 뜻하는지 구분한다. 지니계수는 클수록 불평등, 십분위분배율은 클수록 평등이며,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평등해질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워지고, 지니계수는 0에 가까워지며, 십분위분배율은 커진다.

NoteBase

문 121. 효율임금(efficiency wage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조적 실업의 한 원인이다.
ㄴ. 노동자의 태업을 줄일 수 있다.
ㄷ. 노동자의 이직을 줄일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효율임금이 노동자의 행동과 기업의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효율임금은 기업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때의 손실을 키워 태업과 이직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임금이 균형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면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많아져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ㄱ, ㄴ, ㄷ은 모두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과 ㄷ도 모두 옳으므로 'ㄱ만 옳다'는 구성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② X
ㄴ은 옳지만 ㄱ과 ㄷ도 모두 옳으므로 'ㄴ만 옳다'는 구성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③ X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다. 높은 임금은 실직의 기회비용을 키워 노동자의 태업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④ X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다. 효율임금으로 임금이 균형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면 노동공급 초과와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⑤ O
ㄱ, ㄴ, ㄷ을 모두 포함한다. 효율임금은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태업과 이직을 줄이는 효과도 있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효율임금이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는 점만 보고 실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높은 임금은 노동자의 노력과 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노동공급 초과와 실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율임금의 효과는 노동자 측과 노동시장 측을 나누어 판단한다. 노동자 측에서는 태업과 이직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노동시장 측에서는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 때문에 노동공급 초과와 실업이 나타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효율임금은 '태업 감소·이직 감소·실업 발생'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22.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자본과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각각 5와 8이고, 자본과 노동의 가격이 각각 12와 25이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옳은 것은? (단, 한계생산물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①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고 자본 투입량을 감소시킨다.

② 노동 투입량을 감소시키고 자본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③ 두 요소의 투입량을 모두 감소시킨다.

④ 두 요소의 투입량을 모두 증가시킨다.

⑤ 두 요소의 투입량을 모두 변화시키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현재의 생산요소 조합이 비용을 최소화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본과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각각의 요소가격으로 나눈 값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MP_K = 5$, 자본가격은 $r = 12$이다.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MP_L = 8$, 노동가격은 $w = 25$이다.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소대체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한계생산물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므로 투입을 늘린 요소의 한계생산물은 낮아지고, 투입을 줄인 요소의 한계생산물은 높아져 두 비율이 균등해지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사용할 공식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요소 조합의 조건은
$\frac{MP_K}{r} = \frac{MP_L}{w}$
이다.
이 비율은 요소에 1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할 때 얻는 한계생산물을 뜻한다. 비율이 더 큰 요소를 늘리고 비율이 더 작은 요소를 줄이면 같은 생산량을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이윤이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자본의 가격 1원당 한계생산물은
$\frac{MP_K}{r} = \frac{5}{12} \approx 0.417$
이다.
2. 노동의 가격 1원당 한계생산물은
$\frac{MP_L}{w} = \frac{8}{25} = 0.32$
이다.
3. $\frac{5}{12} > \frac{8}{25}$이므로 자본이 노동보다 비용 1원당 생산 기여도가 크다. 따라서 노동 투입량을 감소시키고 자본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선지 판단

① X —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고 자본 투입량을 감소시킨다'는 조정 방향이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가격 1원당 한계생산물이 낮은 노동을 감소시키고 그 값이 높은 자본을 증가시킨다.
② O — 노동의 가격 1원당 한계생산물은 0.32로 자본의 약 0.417보다 작다. 따라서 노동을 감소시키고 자본을 증가시키면 같은 생산량의 비용을 낮춰 이윤을 늘릴 수 있다.
③ X — '두 요소의 투입량을 모두 감소시킨다'는 것은 주어진 비율 차이를 해소하는 요소대체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노동을 감소시키고 자본을 증가시킨다.
④ X — '두 요소의 투입량을 모두 증가시킨다'는 것도 비용 1원당 한계생산물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노동을 감소시키고 자본을 증가시킨다.
⑤ X — '두 요소의 투입량을 모두 변화시키지 않는다'가 성립하려면 두 요소의 가격 1원당 한계생산물이 같아야 한다. 현재는 약 0.417과 0.32로 서로 다르므로, 올바르게는 노동을 감소시키고 자본을 증가시킨다.

오답 포인트

한계생산물의 크기만 비교하면 노동의 8이 자본의 5보다 크므로 노동을 늘려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요소가격도 노동 25, 자본 12로 다르므로 반드시 '한계생산물 ÷ 요소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 ÷ 요소가격'을 계산한다. 값이 큰 요소의 투입은 늘리고 값이 작은 요소의 투입은 줄이며, 두 값이 같으면 비용을 더 줄이는 요소대체의 여지가 없다.

암기 포인트

비용최소화 조건은 $MP_K/r = MP_L/w$이다. 1원당 한계생산물이 큰 요소는 늘리고 작은 요소는 줄인다.

NoteBase

문 123.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생산물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ㄱ)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ㄴ)와(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노동수요를 결정한다.

① ㄱ: 한계비용, ㄴ: 한계생산가치

② ㄱ: 한계비용, ㄴ: 평균생산가치

③ ㄱ: 한계수입, ㄴ: 한계생산가치

④ ㄱ: 한계수입, ㄴ: 평균생산가치

⑤ ㄱ: 한계수입, ㄴ: 한계비용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생산량 결정 조건과 노동수요 결정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산물시장에서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한계수입이 가격과 같고,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생산량 결정 조건은 $P = MR = MC$이며, 문제의 (ㄱ)은 한계비용이다.
노동시장에서 이윤극대화 기업은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하여 얻는 수입인 한계생산가치와 임금이 같아질 때까지 노동을 고용한다. 한계생산가치는 $VMP_L = P \times MP_L$이므로 노동수요 결정 조건은 $w = VMP_L$이고, (ㄴ)은 한계생산가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제품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정하고, 임금과 한계생산가치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노동수요를 정한다.
② X — (ㄴ)의 '평균생산가치'가 틀렸다.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올바른 표현은 '한계생산가치'이다.
③ X — (ㄱ)의 '한계수입'이 틀렸다. 완전경쟁에서는 가격과 한계수입이 모든 생산량에서 같으므로 이 등식만으로 특정 생산량을 결정할 수 없다. 올바른 생산량 결정 기준은 가격과 '한계비용'의 일치이다.
④ X — (ㄱ)의 '한계수입'과 (ㄴ)의 '평균생산가치'가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한계비용, (ㄴ) 한계생산가치이다.
⑤ X — (ㄱ)의 '한계수입'과 (ㄴ)의 '한계비용'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생산물시장에서 가격과 한계비용을 비교하고,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한계생산가치를 비교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완전경쟁에서 $P = MR$이라는 사실만 보고 ③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P = MR$은 시장구조에서 항상 성립하는 관계이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한계조건은 $MR = MC$, 즉 $P = MC$이다. 또한 노동 투입의 증감은 평균생산가치가 아니라 마지막 노동 한 단위가 더 만드는 한계생산가치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업이 생산량을 정하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생산요소 투입량을 정하면 '요소의 한계생산가치와 요소가격'을 대응시킨다. 완전경쟁 생산물시장에서는 $MR = P$이므로 생산량 조건을 $P = MC$로 바꿔 쓸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생산량은 $P = MC$, 노동수요는 $w = VMP_L$이다.

NoteBase

문 124.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곡선은 $L_D = 1{,}000 - W$이고, 노동공급곡선은 $L_S = -100 + W$이다. 이때 균형임금(W^*)과 균형노동량(L^*)은? (단, L_D는 노동수요량, L_S는 노동공급량, W는 노동 1단위당 임금이다.)

① W^*: 550, L^*: 450

② W^*: 450, L^*: 550

③ W^*: 400, L^*: 600

④ W^*: 350, L^*: 650

⑤ W^*: 300, L^*: 7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노동수요량과 노동공급량이 같아지는 임금과 노동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노동수요곡선: $L_D = 1{,}000 - W$
노동공급곡선: $L_S = -100 + W$
균형 조건: $L_D = L_S$

사용할 공식

$1{,}000 - W = -100 + W$
균형에서는 기업이 고용하려는 노동량과 근로자가 공급하려는 노동량이 일치하므로 두 식을 같게 둔다.

계산 과정

1. 균형 조건을 적용하면 $1{,}000 - W = -100 + W$이다.
2. 이를 정리하면 $1{,}100 = 2W$이므로 $W^* = 550$이다.
3. 수요식 또는 공급식에 대입하면 $L^* = 1{,}000 - 550 = 450$이고, 공급식에서도 $L^* = -100 + 550 = 45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W^* = 550$일 때 $L_D = L_S = 450$이므로 균형임금과 균형노동량이 모두 맞다.
② X — $W^* = 450, L^* = 550$은 균형값이 아니다. 임금 450에서는 $L_D = 550, L_S = 350$으로 서로 다르며, 올바르게는 $W^* = 550, L^* = 450$이다.
③ X — $W^* = 400, L^* = 600$은 균형값이 아니다. 임금 400에서는 $L_D = 600, L_S = 300$으로 서로 다르며, 올바르게는 $W^* = 550, L^* = 450$이다.
④ X — $W^* = 350, L^* = 650$은 균형값이 아니다. 임금 350에서는 $L_D = 650, L_S = 250$으로 서로 다르며, 올바르게는 $W^* = 550, L^* = 450$이다.
⑤ X — $W^* = 300, L^* = 700$은 균형값이 아니다. 임금 300에서는 $L_D = 700, L_S = 200$으로 서로 다르며, 올바르게는 $W^* = 550, L^* = 450$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균형임금과 균형노동량을 서로 뒤바꾼 값이다. 또한 ②~⑤의 노동량은 각 선지의 임금을 노동수요식에만 대입해 얻은 값이므로, 노동공급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요식과 공급식이 주어지면 먼저 두 수량을 같게 두어 균형가격을 구하고, 그 값을 두 식에 각각 대입하여 동일한 균형수량이 나오는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시장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이다: $L_D = L_S$.

NoteBase

문 125. A국에서 실업률이 6%일 때 실업자가 60만 명이라면, 취업자 수는 얼마인가?

① 60만 명

② 940만 명

③ 1,000만 명

④ 1,060만 명

⑤ 1,100만 명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실업률의 분모가 경제활동인구라는 점을 이용하여 취업자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실업률 6%, 실업자 60만 명
구해야 할 값: 취업자 수
주의할 조건: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며, 실업률은 전체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용할 공식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100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수+실업자 수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주어졌으므로 첫 번째 식으로 경제활동인구를 구한 뒤 실업자 수를 빼면 취업자 수를 구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실업률 6%를 소수로 바꾸면 0.06이다.
2. 0.06=60만 명경제활동인구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60만 명÷ 0.06=1,000만 명이다.
3.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뺀 1,000만 명-60만 명=940만 명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60만 명은 취업자 수가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실업자 수이다. ‘취업자 수는 60만 명’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취업자 수는 940만 명’이다.
② O — 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에서 실업자 60만 명을 빼면 취업자는 940만 명이다.
③ X — 1,000만 명은 취업자 수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이다. ‘취업자 수는 1,000만 명’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이고 취업자 수는 940만 명’이다.
④ X — 1,060만 명은 구한 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에 실업자 60만 명을 잘못 더한 값이다. ‘취업자 수는 1,060만 명’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빼서 ‘취업자 수는 940만 명’이다.
⑤ X — 1,100만 명은 실업률 공식과 주어진 수치로 도출되지 않는다. ‘취업자 수는 1,100만 명’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취업자 수는 940만 명’이다.

오답 포인트

실업률 6%의 분모를 취업자 수로 보거나, 계산한 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을 곧바로 취업자 수로 고르면 틀린다. 취업자 수를 구할 때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60만 명을 한 번 더 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주어지면 ‘실업률로 경제활동인구 계산 →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차감’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며,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값이다.

NoteBase